

빛과 소금이 되는 건축의 토양

The soil of the Architecture which light and salt become

역사의 흐름을 넘지시 지켜볼 때 변화는 늘 새로움을 동반하곤 한다. 그리고 현실에 깊이 안주하기보다는 늘 상 새로움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할 때만이 그 변화의 중심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곧잘 변화의 속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때론 전혀 그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트렌드에 맞추어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가져올 증폭되는 무서운 파괴력은 단기 간에 쉽게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변화의 속도는 빠르게 우리를 그 흐름에 동화시키기도 하고 아주 느리고 조용히 엄습해 우리의 생활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변화의 속성은 속도에 따라 우리가 예측하는 방향으로든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결과로도 나타난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 짓이 미국 텍사스 주에 발생한 토네이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나비효과처럼 매우 사소한 변화가 의외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변화의 속성은 불규칙한 카오스의 성질을 듬뿍 함유하고 있기에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현명한 적응력을 길러가야 할 것이다. 마치 그것은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그 변화를 주도할수록 기업이 생존전략에서 높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과도 같다. 점차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건축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단순히 기술적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환경과 문화, 역사성·사회성을 중시하는 건축사들과 건축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변화의 대처 논리는 어김없이 적용된다.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해가는 유비쿼터스 시대, 디지털환경에서 한 몇몇 건축가는 아날로그적 사고와 행동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각종 이즘과 트렌드의 변화를 겪게 되는 요즘 변화의 흐름을 직시하고 새롭게 다가올 국제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체계적이고 현명한 준비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치즈를 타먹기보다는 자신에 맞는 치즈를 만들어야 하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치즈가 어떤 내용물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정해진 틀이 아무리 작고 볼품없더라도 그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변화의 가치를 찾는 것일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자기 자신에서 시작된다. 말처럼 우리 건축계도 이제 변화의 흐름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당당히 그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환경을 좀 더 건강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가는 건축사의 훈훈한 미담과 건축계의 술한 담론과 이야기 거리를 담고 소통의 장치로서 작용하는 건축매체 종사자들은 우리 주변에 곳곳에 다채로운 숨소리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그 차이가 저마다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본질의 순수성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 못지않게 풍성하고 따뜻하게 다가온다.

잠시 머리를 비우고 우리 주변에 진정 이를 옮겨가고 있는 재능있는 건축언론인들이 과연 몇이 있을까 세어본다. 몇몇 유능한 선배들, 그리고 하나, 둘, 셋... 머뭇거리다 그 터전의 빈곤함에 끝끝 혀를 차보는 현실이다. 그저 건축언론인들을 양산하지 못하는 태생적 자기자본의 취약성과 명분의 미약, 상업주의에 눈먼 틀에 박힌 현실안주, 양적 팽창을 초래한 시장환경과 경영의 자질부족 등을 탓해 본다. 이와 더불어 생존전략에 우위를 점령함으로써 공룡과도 같이 비대해진 왜곡된 설계집단구조와 이로 인해 야기된 건축환경의 변화는 더욱 재능있고 자라날 수 있는 건축사와 건축언론인들의 흙냄새 나는 건축적 담론의 토양을 질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곤 한다.

다시금 현실로 돌아와 우리 건축계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하나하나 그 여론을 수렴해보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과연 세계시장에 부합되거나 커다란 흐름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 면밀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점차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건축사들의 참신성과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키워내야 하고 이를 위한 터전의 자리매김, 건축사들의 행동반경을 넓어가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불변과 성실, 덕망을 나타내는 사파이어처럼 빛나는 건축사와 그들의 참신한 건축언어와 이를 논하는 진지한 담론들이 가득 넘쳐나는 건축세상이 사회 곳곳에서 풍성하게 펼쳐졌으면 여원이 없겠다. 푸념 섞인 한탄만은 제사를 깎는 첩경임을 냉철하게 인지하고 건축계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글자 한 글자가 산이 되고 바다가 되고 대양으로 성장하는 진정 세상을 바꾸는 일임을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올바른 건축계의 방향성을 찾고자, 더 넓은 건축환경을 위한 밑거름에 보탬이 되고자 신문의 지면을 차곡차곡 채워간다는 실천정신을 가져본다. 보다 깊고 넓은 마음으로 사색하듯 건축언론을 인식하고 진정 건축계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건축언론에 대한 소중한 의미를 숨죽이며 배우고 실천하고자 한다. ■



김용삼 / Kim, Yong-sam
건축디자인신문 에이앤뉴스
편집국장

-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저널
출판기획위원
- (사)한국공간디자인단체총연합회
(SDAK)상임이사
- (사)한국공간환경디자인학회
(SEDIK)홍보마케팅 위원장
- 서울시 2010서울건축문화제
집행위원회 홍보마케팅위원
- 건축문화학교 문화부 전문위원